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바람 따라 날라드는 구름(雲)처럼, 자유로이 제 집 찾는 새(鳥)처럼’ 고향에 안겨 이웃과 함께 살고자 했던 집. 온 세상에 대문을 열어 놓고 안살림마저 드러내 놓은 온조루. 그래 그 이름이 더욱 상스럽다.

배고픈 이와 음식 나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만약 도움이 손이 필요하다면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전설의 배우 오드리 햅번이 항상 아들에게 들려준 말이다.

우분투(UBUNTU), 어느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경의 반투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달러간 아이에게 딸기를 모두 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시작과 함께 펼쳐진 광경은 그의 눈을 의심케 했다. 앞다퉈 뛰어가리라 예상했으나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다다르자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딸기를 먹더라는 것이다. 그 인류학자가 “왜 1등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말뚝을 박는다는거냐. 군생활은 허송세월이라는 것 등이다. 부모다 문을 종시하는 전통문화도 그렇지만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필요이상으로 군과 군인을 홀대하는 풍조가 확산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군부대의 총기사고와 구타사망 사건은 비단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아니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이삼십년 전에도 구타근절을 외치고 선후임병간얼차려금지 등을 시켰지만 국방부 시계는 질팔십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동거들끼리 속속 쓰게 하거나 국방헬프콜을 설치하는 등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다뤄줘 헛바퀴 돌 듯 사고만 반복될 뿐이다.

형식적인 소원수리와 신고자는 조직내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문화, 가혹행위와 구타사고 등으로 인해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승진체계에 아픈 일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먹은 식기를 두고, 다리미질을 배우며, 제 앞가림을 배우는 곳. 평생 쓸 체력을 단련하고, 상하관계를 통해 조직생활을 경험하고, 비바람과 눈보라속에 땀 흘리며 배우는 인내와 끈기는 부모와 선생이 가르치기 힘든 수련과정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군이 직업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보통의 한국남자들과 어머니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역시절 군기만 잡던 고참도, 못마땅하지만 하던 후임병도 나이따라 선후배가 되고 친구가 되는 모태가 내무반이다. 육해공 어느 출신이건 군대이기만 나오면 얌은 자리에서 한나절씩 거뜨히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는 소재가 군사절이다. 현역 때는 비껴가고만 심던 생활이 제대해서는 출신학교 자랑은 안해도 근무하던 부대지랑이 날새는 줄 모르는게 한국의 보통 남자들이다. 그들마저 입대를 거부하자는 줄을 서기전에 가족을 보는

나만 기본 좋을 수가 있어요?” 우분투, ‘네가 있음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는 반투족의 일상용어다.

요즘 광주에서는 무더위 속에도 사랑을 전하는 ‘까치밥 홍시’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까치밥 홍시는 커피숍과 카페 등을 찾는 사람들이 홍시 모양의 메모지에 나눔을 전하고픈 의의 이름과 매뉴를 적고, 미리 음료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나눔운동’이다.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청 1층 커피숍, 동구 자활센터 카페 등 30개소에 달한다. 그곳에 가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빼곡히 늘어선 홍시 메시지, ‘폐지 줄는 할머니께 팔빙수 한 그릇’ ‘집배원 아저씨께 냉커피 한 잔’ 등등.

이 나눔운동은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대학생과 공익운동가들이 “100년 전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에서 시작된 ‘말겨둔 커피’와 비슷한 나눔 문화활동을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나눔·배려가 세상 바꾼다

까치밥 홍시도 그에 들어맞는 ‘/찬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줄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라는 김남주의 시 ‘옛 마을을 지나며’에서 따왔다. 까치밥을 통해 광주의 정신인 나눔과 배려문화를 되살리자는

얘기다. 최근에는 광주를 넘어 순천에서도 ‘홍시’가 열리고 있다.

“미리내 운동”도 전국을 수놓고 있다. 미리내는 은하수의 우리 고유어이지만 이 운동에서 말하는 ‘미리내’는 미리 낸다는 뜻. 밥 한 그릇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미리내 가게’는 전국적으로 260여 개에 이른다. 누군가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한 끼 식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 또 한 끼의 음식값을 미리 내는 작은 나눔실천운동이다. 이 역시 나폴리에서 시작된 ‘말겨둔 커피’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는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 서구 금호1동 주민센터는 8년 전부터 기탁받은 쌀을 어려운 가정엔 나누는 ‘제2의 온조루 운동’을 펴고 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익명으로 거액을 내놓는 ‘이름 없는 기부 천사’들이 줄을 잇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수백을 선사하는 ‘한여름의 산타크로스’도 있다.

각박해진 세태 속에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기부 바이러스’는 참으로 아름답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진정성이 묻어나는 ‘나눔’은 감동이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든 답답하기만 한 호남민들, 30도를 웃도는 이 여름 누군가를 위해 시원한 팔빙수, 냉커피를 나누면 어떨까.

은편칼럼

군대도 학교라고 믿을 수 있기를



옥영석 은편상 2005년 수상자

아직 코를리게 아이만 같은 아들이 9월이면 입대를 하겠다. 입대하던 날 말을 잊지 못하시던 어머니의 얼굴, 먼 길을 달려와 내미셨던 작은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감촉이 여제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아들이 군에 갈 나이가 되었다니 맘이 교차하는 걸 어쩔 수 없다.

산이라도 데리고 다니며 체력이나 보강하러지만 등산 몇 번 한다고 체력이 늘리도 만무고 이런저런 경험담이나 들려주다보니 아이가 군생활은 썩는 세월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들은 선입견이겠지만 입대해서라

도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생길이 뒤흔겨 보여 안타까웠다.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뿐 아니라 대개의 젊은이들은 군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나 폄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군인은 단순하거나 사회에서 할 게 없는 사람이 말뚝을 박는다는거냐. 군생활은 허송세월이라는 것 등이다. 부모다 문을 종시하는 전통문화도 그렇지만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필요이상으로 군과 군인을 홀대하는 풍조가 확산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군부대의 총기사고와 구타사망 사건은 비단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아니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이삼십년 전에도 구타근절을 외치고 선후임병간얼차려금지 등을 시켰지만 국방부 시계는 질팔십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동거들끼리 속속 쓰게 하거나 국방헬프콜을 설치하는 등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다뤄줘 헛바퀴 돌 듯 사고만 반복될 뿐이다.

올 여름 휴가, 아름다운 여수에서 충전하자

기고



박은규 여수시 관광진흥팀장

올 여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휴가를 떠난다면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아름다운 여수를 권하고 싶다. 여수는 예로부터 해양문화가 발달해 주변지역 국가들과 많은 교류를 해 왔고, 조선시대에는 400년간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려 도로·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어 여수다운 여수로 새롭게 태어났다. 중앙과 멀어 번방이었던 곳이 자가용으로 수도권에서 3~4시간, 부산·경남권에서 2시간대 그리고 KTX로는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 역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또, 5개의 특·1·2급 호텔과 10개의 관광호텔, 2개의 콘도를 갖춘 훌륭한

한 숙박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여행 만족감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체류하고 충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여수는 도심 풍광이 좋고 혼이 살아있는 도시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멀티미디어 빅오쇼와 아쿠아플라넷, 스카이다워 등이 있는 박람회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스카이플라이, 범포카, 엑스포투어 전기차 등 체험프로그램이 더해져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인근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며 동백꽃 군락지로 유명한 오동도가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방파제 길의 풍광에 취해보고, 안락하고 편한 동백꽃 길을 산책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도 키우고 꿈을 다지기에 좋은 곳이다. 도심으로 들어오면 조선시대 400여 년간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진남관이 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때의 해전 상황,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품전시관과 좌수영 다리를 건너 조금 걸으면 이순신 장군이 수군훈련을 독려하고 임진왜란 발발 후 작전 계획을 세우는 등 군령을 내린 고소가 있다. 이 길은 천사골목 ‘벽화의

거리’라 불린다.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소동 산동네 골목길 약 1000m의 주택 벽면에 지역 역사, 문화, 풍경 등을 소재로 불거리를 담은 곳이다. 이곳에서 전란 때 전사한 지역민들의 헌신과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의 뜻을 되새겨 보며 당시 여수를 그려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여수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다. 물이 좋아 ‘麗水’라지만 호수 같은 바다와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다. 숨어 있다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알려졌다고나 할까. 그 대표적인 것이 버스커버스터의 ‘여수밤바다’ 노래다. 뒤이어 거북선 아영투어와 여수 시티투어, 올빼미 야경투어로 이어진다. 하나하나의 불빛이 모여 조화를 이루어내는 국가 산단 야경은 우리의 낮을 빼앗기에 충분하고, 돌산공원 등 시내 여기저기서 바라다보이는 밤바다와 형형색색의 야경은 여수관광의 꽃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셋째, 여수는 하늘이 내린 섬 관광의 도시다. 천혜의 비경과 100년 역사의 동대, 영국군 묘지 등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문도 그리고 원시자연의 아름다움 있는 광과 바다를 배경으로 트레킹할 수 있는

아름을 감수하고라도 혁신이 혁신을 거듭하기 바란다.

나는 아이에게 군대는 제2의 학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스포츠여성이 다되도록 밥 한번 해본 적 없고, 제 숙속조차 빨아본 일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먹은 식기를 두고, 다리미질을 배우며, 제 앞가림을 배우는 곳. 평생 쓸 체력을 단련하고, 상하관계를 통해 조직생활을 경험하고, 비바람과 눈보라속에 땀 흘리며 배우는 인내와 끈기는 부모와 선생이 가르치기 힘든 수련과정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군이 직업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보통의 한국남자들과 어머니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교육청-자사고 갈등, 학생들 피해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간의 갈등이 지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사고의 선발 제한권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송원고의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연장하되,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천방식 학생 선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승인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내신 상위라는 선발기준을 폐지하면 자사고로서 차별력이 없고 등록금만 일반 학교에 비해 3배가량 비싼데 누가 지원하겠느냐”며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사고인 송덕고도 시교육청이 자기주도적 전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일하지 않는 지역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만 다 갔다.” 7·30 재보선 결과 순천·곡성 지역구에서 당선돼 ‘선거 혁명’을 이룬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11월 당무 첫 회의에서 터져 나온 그의 발언으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988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정착 이후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경상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독점에 의한 패당이 심각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파가 30년 가까이 호남을 독식하는 바람에 영남 지역민의 배타적인 정치 행태와 맞물려 고질적인 지역갈등을 빚어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정 정파의 호남 독식이 가져온 가장 큰 피해는 ‘고압적이고 게으른’ 국회의원의 양산이라 할 수 있다.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 됐으므로 오로지 두려운 존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지도부밖에 없었다. 선거 때만 반

無 等 鼓

영화 ‘명량’이 최단시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제는 전무후무한 기록 ‘1500만 관객’에 도전 중이다. 무엇보다 이토록 경천동지할 기록을 이 끌어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명량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다. 태풍 앞에 깎뎀이던 조선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진 구국의 영웅이다. 무엇보다, 무능한 왕과 권력에 목 맨 동료에게 배신 당하고도 두말없이 백의종군함으로써 꺼져가던 조국의 운명을 일으켜 세운, 그리고 국가로부터 별 다른 보상도 받지 못한 비운의 영웅이다.

지금 ‘명량’의 폭발적인 인기가, 자신을 억누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불우한 이순신’에 대한 우리 민족의 ‘빛 값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항상 빛은 결국 청산되어 왔다. 청산되지 않은 빛도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언제가 기해자에게 되돌아간다는 것 역시 장구한 역사의 변치않는 교훈이다.

‘명량’과 이순신의 인기 뒤켤에서 한 숨짓는 독립투사와 민주화 유공자, 종군위안부문제에도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빛’ 말이다.

하지만, ‘민족과 역사의 발전’이란 신성한 제단(祭壇)에 몸 바친 이들 가운데 뒤늦게나마 그 뜻이 기려지고 보답 받는 ‘행운’을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립유공자 가운데 상당수가 빈곤의 늪에서 신음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폄훼되고 있으며, 종군위안부 역시 가해자인 일본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 우리 민족 모두가 인정하고 또 기쁘게 값을 준비가 되어 있는 빛이라고 한다면, 5·18과 종군위안부는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인정하기 싫은’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항상 빛은 결국 청산되어 왔다. 청산되지 않은 빛도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언제가 기해자에게 되돌아간다는 것 역시 장구한 역사의 변치않는 교훈이다.

‘명량’과 이순신의 인기 뒤켤에서 한 숨짓는 독립투사와 민주화 유공자, 종군위안부문제에도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 화 생활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매 체 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